

**칼럼**

# 공공 건설 수주 환경 변화와 적응



**민형종**  
조달청장

조달청이 서울 반포동에 있던 시절, 거의 매일 청사 주차장과 주변 이면도로가 꽉 막히곤 했다. 입찰에 온 기업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입찰실마다 만원이었고, 전기·통신공사 입찰엔 수백 명이 참여해 대강당에서 집행되었다. 수주에 성공한 기업도, 실패한 기업도 표정이 살아있었고, 활력이 있었다. 한 건, 한 건 입찰 집행이 증노동(?)이었지만 건설산업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던 때였다.

그러다 SOC 건설이 마무리되어 가고, 건설업이 등록제로 바뀌고, IMF 위기를 겪으면서 건설업과 공공 건설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국가 경제에서 건설업 비중이 축소되고, '줄어든 일감, 많아진 기업'으로 공공 시장은 치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거기에 2000년부터 전자입찰이 실시되면서 입찰 풍속도도 완전히 달라졌다. 입찰실이 없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온 종일 걸리던 전기공사 입찰이 집행관 PC에서 20분 내 끝나는 '디지털 입찰'로 변했다. 공교롭게 이 모두가 조달청이 대전으로 옮겨온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의 변화다!

요즘 간담회에서 만나는 건설 기업인들의 표정이 참 어둡다. 공사 현장에서도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경기가 위축되고 건설업 위상이 전 같지 않으면서 사기와 의혹까지 저하되었나 싶어 안타깝다. 그러나 건설업 비중이 떨어졌다 해서 중요성까지 줄어든 건 아니다. 생산, 고용 측면에서 여전히 건설업은 중요하다. 지난 50년 동안 경제 발전의 견인차였던 건설산업이 일시 침체로 동

력을 상실해선 안 된다. 건설 수요는 늘 있게 마련이다.

적자생존이다. 이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응할 수밖에 없다. 먼저, 건설업 경쟁력 향상은 더 미룰 수 없는 화두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기술 우수 입찰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기술 제안형 입찰을 활성화하고, 선진형 설계 기법인 BIM과 녹색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에서 제 값 받고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도 기술력·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산업 환경이 참여 주체간 '상생' 구조로 바뀌고 있다. 불황일수록 경제적 약자 기업이 더 힘들고 어렵기 마련이다. 상호 협력과 발전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바뀐 입찰제도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또, 원칙이 바로 선 공공 건설시장이 핵심 이슈가 되었다. 담합, 부당 하도급 등 불법, 불공정 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실력과 성실 시공만이 생존·발전의 비결이다. 더욱이 FTA 체결로 해외 공공 건설시장이 속속 열리고 있다. 이제 한계에 달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외국 정부 발주 공사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그래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

건설기업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준과 제도를 보완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여 정부와의 거래가 보다 편리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협업 아래 바뀐 환경을 잘 극복하여 건설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고, 기업인들의 표정이 이전의 '반포동 시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CERIK